

韓日公共部門労働者宣言

2009 年から始まった韓国と日本の清掃労働者同士の交流は、今年、第4次の交流が実現しました。

新・自由主義経済を政治潮流とする日本と韓国の政治情勢の下、これまでの交流では、労働者の賃金水準や非正規職問題、労働安全衛生問題など、日韓の労働者が同じ課題で日夜奮闘していることを確認できました。また、お互いの取組に学びあいながら、さらに強固な連帯で運動の幅を広げていくことを誓いました。

本年4月16日、韓国で300人以上の尊い命が犠牲となったセウォル号事故が発生しました。船長を始め多くの乗組員が契約社員で、非正規雇用で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国家としての基本構造、権力の機能や役割など多くの重大な問題が明らかになり、市民社会と国家の関係、その本質について改めて問われるきっかけとなりました。セウォル号事故は、資本の貪欲さと無能な韓国・朴槿恵政権による大量殺人である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日本の安倍政権は、米国の覇権維持強化に追随し、自国と密接な関係にある国を守るために武力を行使する集団的自衛権は、自衛権の行使の範囲内だとし、国家の最高法規である平和憲法の骨抜きを策動する暴挙に邁進しています。

かつてのアジア太平洋戦争で多くのアジアをはじめ他国の人々を殺傷、人権を蹂躪し、沖縄をはじめとする日本国民に多くの犠牲を強いたにもかかわらず、自らの戦争責任を問うことをしてきませんでした。

日本でも韓国でも、労働者や市民が人間らしく働き、生活する権利を根本から破壊する政策が推し進められています。企業と資本家の利益を第一とし、労働者や市民には自己責任を強いることに躍起になっています。

私たち日韓両国の労働者は、非正規労働者に対する労働条件の差別を許しません。最も大切なのは“人”であり、まじめに働く労働者・市民が報われる社会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あらゆる戦争の脅威も断固拒否します。

私たち日韓両国の労働者は、平等な労働者の世界と、東北アジアの恒久的な平和のために奮闘することをここに宣言します。

2014年6月26日

韓国自治体非正規労働者来日

非正規公務員の正規雇用化報告集会

한일 공공부문 노동자 선언

2009 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청소노동자 교류는 올해가 제 4 차 교류입니다.

신 자유주의 경제를 정치적인 흐름으로 하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상황 아래, 지금까지의 교류는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비정규직문제, 노동안전보건 문제 등 한일 노동자가 동일한 과제에서 밤낮 분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배우고 노력하면서 더욱 강력한 연대 운동의 폭을 넓혀가는 것을 맹세했습니다.

올해 4 월 16 일, 한국에서 300 명 이상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장을 비롯하여 많은 대원이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가로서의 기본구조, 권력의 기능과 역할 등 많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 그 본질에 대해 재차 추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자본의 탐욕과 무능한 박근혜 정권에 의한 대량 학살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베 정권은 미국의 패권 유지강화에 추종하여,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의 최고법규인 평화헌법을 파괴하는 책동과 폭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타국의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 국민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지른 전쟁 책임을 스스로에게 묻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노동자와 시민이 인간답게 일하고 생활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와 시민에게 자기책임을 떠넘기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일 양국의 노동자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 · 시민이 되는 사회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전쟁의 위협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 한일 양국의 노동자는 평등한 노동자의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분투하는 것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2014 년 6 월 26 일

한국 자치단체 비정규 노동자 방일 기념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화 보고 집회 참석자 일동